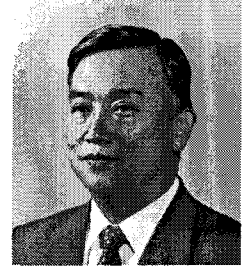


에너지産業의 구조변화와 기술개발의 選擇的 戰略

이 글은 지난 5월 16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에너지 협의회가 주최한 에너지 관련 인사 조찬간담회에 초청된 정근모 과기처장관의 강연 내용을 녹취 게재한 것입니다.



鄭 根 謨
과학기술처 장관

러분 오늘 아침에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종훈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협의회를 발족할때 여의도에 있는 한전 전력처에서 그 당시 겨울인데 여기에 계신 몇분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World Energy Council(세계에너지회의)이 오랫동안 움직여 있었고, 우리나라의 에너지계가 여기에 참여는 했지만, 별도 국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 에너지계에 있던 여러분들이 모여 Korea Energy Forum(한국에너지협의회)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계가 열심히 일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저렴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에 대해 위기감이 없이 항상 공급이 잘 될 것이라는 신뢰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두되는 여러분아에서는 언론의 많은 보도도 있지만, 에너지계에 대해서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Take it for

granted' 그러니까 잘되겠지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에너지계가 열심히 일한 업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한국의 앞날을 볼때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고, 그 급격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맞게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도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제가 현재 과학기술처를 맡고 있어 원자력정책 행정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현안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데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세계적 차원으로 볼때 에너지산업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는 소위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Public Control 즉 공공규제 또는 정부부문이 직접 에너지수급에 대해서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그것에 상당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경제체제로 에너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력부문만 보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Network로 연결이 되고, 그 Network를 통해서, 전력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한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하나의 상품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러한 기술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WTO체제 출범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우리는 에너지자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부문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이라든지 자본재산업 건설등이 개방화되고 세계화되어 거기에 관련된 시장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7년초부터는 설비자본재에 대한 시장이 개방됩니다.

제 생각에는 99년초가 되면 엔지니어링도 이제 개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에너지계가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부 중심의 에너지산업에서 이제는 미래를 보면서 경쟁력있는 에너지산업을 운영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중요한 또하나의 요소는 환경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깊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92년 리우에서 회의를 할 때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겠다.

즉,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원칙에 입각한 에너지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Clean Technology 또는 환경적으로 Less Impacting, 그러니까 적게 영향을 주는 대체에너지개발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계에 상당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개방화되고 민간섹타로 들어가는 에너지산업이 환경에 관련된 국민적인 규제여건 즉, 국민적인 요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과학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러한 국경없는 무한경쟁에서 우리의 국적있는 에너지산업이 우리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가려면 상당한 과학기술개발을 이루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를 볼때는 우리가 현재 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양성을 해야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대체에너지로서의 가치성을 이미 충분히 발휘했고,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기대하지 못했을 정도의 엄청난 업적을 이룬 에너지분야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우리 에너지 산업계로 볼때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볼때도 원자력에 대한 우리의 중지를 모아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정책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세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번째는,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원자력발전에 의해서 40%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체에너지로서 또는 환경과 연결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능력있는 인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국내 뿐만 아니

라 해외까지 진출하는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건은 안전성확보를 철저히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행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의 제일을 철저한 안전성 확보라고 정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볼때 우리가 원자력발전도 하고 여러가지 핵의학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원자력의 기본기술에 대해 인류가 활용하고 있는 수준은 원자력기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비하면 충분히 개발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원자력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자력발전을 처음에는 Turnkey Base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Island Base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Component Base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설계를 가지고 한다고해서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이제는 북한에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로서 볼때는 우리가 앞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즉, 10여년전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많기

“원전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전그룹사, 민간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야 ”

때문에, 그것을 지탱해줄 수 있는 연구개발 업무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원자력 행정에 대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동전을 세어가면서 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비전을 가진 그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앞으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을 리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의 역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두번째의 기본방향입니다.

세번째,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전사업은 이제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하고, 우리의 경륜은 선진국에 비하면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일심해서 동체가 되는 일사분란한 사업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제가 볼때는 우리 원자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전성확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기술이 일천하기 때문에 외국의 것을 많이 배웠고, 외국의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중심으로서 기술력을 높임으로서 우리가 볼때 더욱 합리적인 안전성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키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해

서 학계와 연구계가 지원을 해주면서, 투명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안전성확보 체제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처가 정부로서 안전성확보에 대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Backup이 없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계와 연구계에 기술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완전한 투명성을 갖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는 일점의 의혹도 없는,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킴으로서 우리 원자력산업의 장기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원자력의 연구개발은 우리나라의 연구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경륜이 높은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소를 정점으로 해서 산업계연구소, 학계연구소, 또 다른 연구소들의 연구팀들을 연결하고 연구개발 공동체를 구성해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를 하려면 연구비 즉, 안정적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전 1전 2전을 아껴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나오고, 관련 연구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에너지계 여러분께 제가 호소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

“KEDO 사업은 정치외교적인 문제에서 이제 사업단계로,
떠넘기기식의 책임전가에 대비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

주시면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연구기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같이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전그룹 내의 사업하는 회사들,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Network를 구성하여 일사불란한 원전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수성 총리께서 터키에 가서서 원전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누셨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의 원전사업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역시 우리나라의 원전사업을 거기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국내에 원전사업을 하는 팀들이 서로 자기 지분을 위해 협조없이 된다면 괜히 우리가 해외경쟁자들에게 우리의 강점을 잃게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전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사업추진을 하는게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체제가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 즉, 우리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맡은 부문, 즉 안전성이나 연구개발이나 사업, 전부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원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안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5,6호기를 건설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확신있는 신뢰감을 넣어주는데 우리 에너지계가 힘을 합쳐서 나서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KEDO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KEDO사업이 이제는 사업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치외교적인 여건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던데서 벗어나 이제는 사업추진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성문제만 해도 북한의 안전체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안전체계를 우리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제생각에 KEDO라는 기관은 외교관과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미국 Lawyer들이나 구라파 Lawyer들 그리고 외교관들의 주업무가 무엇이나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따라서 한전에서 계약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다른 분들이 계약할 때 이 계약내용의 한자한자를 다봐서 떠넘기기식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더라도 알고넘어가는, 즉 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사불란한 국내 원전사업체제를 가동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에너지로서의 역할 이외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돼야,
非原電기술에 대한 가능성 높아져 대덕에 첨단의료원 건설 계획”

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설계표준화 사업의 제1차 사업으로서 100만kW급의 PWR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100만kW급 설계도 설계개선을 통해 더욱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130만kW급의 제2차 표준설계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차세대원자력발전소 설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먼 장래를 향한 그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전주기적인 핵주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노형선택이든지, 각 설계의 연결고리를 연결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KDI에서도 장기구상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2년, 5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즉 그 앞을 내다보려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불완전한 핵연료주기가 아니라 완전한 핵연료주기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韓美原子力常設共同委員會가 창설되어서 미국의 NRC위원장이 왔었습니다.

제가 깜짝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년전에 미국이 그렇게 방해로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했던 DUPIC(경·중수로 연계핵연료) 연구개발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수로와 중수로를 같이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수로의 핵연료와 중수로의 핵연료를 연결시키면 엄청난 능률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기술적으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장점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하겠다는데 대해서 미국 등이 그전에 방해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논리성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기들도 거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형을 선택 하든지, 아니면 그 노형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개발을 하든지 핵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줘야 되지않느냐,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금방 결정할 수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非原電技術開發에 대한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으셨겠지만 대덕단지에도 첨단의료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대덕이나, 저는 거기에 깊은 생각의 하나가 원

“에너지부문의 업적은 괄목할 수준이며,
이제는 자립능력이 있어 재도약에 중지를 모을때”

“연구개발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위해서,
기업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도 활용해야”

자력연구소가 갖고 있는 하나로로 운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생체에 대한 연구, 생체에 대한 진료, 생체에 대한 치료 등, 이 부문에 있어서 원자력기술의 활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특수한 동위원소의 활용을 필요로 하고,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것을 통해서 뇌에서부터 우리 신장의 조직조직을 연구해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 첨단의료원을 만들고, 거기가 임상실험연구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의과학센터와 의공학센터를 연결하고, 대덕에 있는 연구소들 특히, 원자력연구소와 연결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때 원자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확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원자력에 대한 종합진흥개발계획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이미 실행중에 있지만, 아마 6월초까지는 원자력화회를 중심으로한 팀들이 원자력에 대한 종합장기진흥계획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차세대원전설계도 포함돼 있고, 핵연료 전주기 기술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들어갈 것이고, 비에너지 원자력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산업기술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좀더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알수 있는 것들을 넣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에너지계 지도자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동력자원부가 상공부하고 통합되면서 원자력계 뿐만 아니라 에너지계에 있는 분들이 볼때는 하나의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 독립부서로 있을때 갖고 있던 가치적인 효과, 국민에게 주는 그러한 효과는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에너지계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남들이 칭찬한다고 할때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전력분야, 가스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엔지니어들과 경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못지않은 업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계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께 다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력을 바탕으로한,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그러한 기술이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최근 통계는 못보고 있지만, 한국통

신이 R&D에 투자하는 것이 7%가 넘습니다.

우리 한전이 R&D에 몇퍼센트 투자를 하느냐, 또 가스공사가 몇퍼센트를 투자하느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아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R&D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R&D 업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Return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미지메이킹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보통신부가 출발했지만 항상 “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이고, 첨단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믿을만 하다”는 것이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계도 첨단기술로 볼때는 정보통신계와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계가 국민에게 여러가지 할일에 대한 설득과 또한 우리 국민에게서 받는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 R&D를 최고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 또한 기업의 산업계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으로서의 연구개발을 생각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산업의 경우 우리는 원자력산업을 좀더 활용해서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와, 특히 남북 평화통일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KEDO사업은 기저사업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KEDO사업을 단순한 발전소건설사업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만드는 그러한 체제에 있어서의 귀중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모아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원자력계가 국제 원자력계에서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우리를 상임

이사국으로 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완전히 동의는 않았지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원자력기술개발 업무라든지 훈련업무에 있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IAEA 경영층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화된 선진국이 되려면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자력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세계화된 선진 대한민국의 분야로서의 그 역할을 제일먼저 하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시점에 있어서 에너지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과학기술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국에 가고 세계중심의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해야 하겠다는 말씀과 이수성 총리, 전임 이홍구 총리께서 대덕을 왔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화가 되든 선진국이 되든 바로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야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우리나라의 정계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기술특별법 제정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에너지협의회 간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